



- 1 피난시설 제주에 머물렀던 소설가 계몽목.
- 2 서귀포 천지연폭포 가는 길 김광협 시비 '유자꽃 피는 마을'.
- 3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너븐숭이 4·3유적지에서 세워진 '순이삼촌' 문학비는 그것이 또 하나의 설치 작품으로 읽힌다.
- 4 서귀포 도심 칠십리시공원. 20점 가까운 시비가 산책로를 따라 군데군데 세워져있다.
- 5 제주 앞바다가 바라보이는 탐동 해변공연장 입구 '떠나가는 배' 시비.

문학의 공간 따라 새겨진 그 문장... 바다를 노래하고 4월을 울린다

문학이 있는 풍경 문학 도시를 가다

(2) 제주를 품은 문학비

그대가 무심하게 걷고 있는 제주섬 어디쯤에 문학이 있을지 모른다. 어떤 이의 시와 소설 구절이 검은 빗물에 새겨진 채 곳곳에 흩어져 있어서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언뜻이라는 천지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그곳에 오래된 시비(詩碑)가 있다. 서귀포에서 처음 문단에 데뷔한 시인으로 불리는 김광협의 '유자꽃 피는 마을' 시비다. 주변에 뒤늦게 심은 유자나무에 '하이얏게' 꽃이 피어날 때면 더 향기로우지는 시 구절이 숨는다.

김광협 시인 사후인 1995년 시비건립추진위원회가 꾸려졌고 이듬해 시비가 설치됐다. 시비를 만든 연유는 빗물 후면에 담겼다. "강설기"를 시작으로 8편의 시집을 내는 동안 뛰어난 서정과 민중의식에 바탕을 둔 예술적 감각으로 투박하면서도 빛나는 시편들을 남겼다. 거기다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제주 토속어를 시로 형상화하는 작업에도 남다른 정열을 기울이다가 1993년 문득 51세 나이로

타계하니 참으로 애석한 일이었다. 이제 문학의 해를 맞아 시인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기리고자 여기 시 한편을 돌에 새겨 세운다."

1996년은 당시 문화체육부에서 지정한 문학의 해였다. 문학을 중심으로 둔 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열기를 띠며 진행될 때 제주엔 시비 하나가 들어섰다.

천지연을 빠져나와 삼매봉으로 향하다보면 시비와 노래비가 나무처럼 땅에 딛고 선 공원이 보인다. 2008년 12월에 막을 걷어올린 '서귀포칠십리 시공원'이다.

시공원은 천지연해위험지구 조정사업으로 추진됐다. 지금의 공원 인근 하천변은 침식 현상 등 재해 위험이 높았고 서귀포시는 농지 등으로 쓰던 땅을 매입해 공원을 꾸렸다. '재난'을 '예술'로 바꾼 이 공원은 산책로를 따라 높이 2m 내외의 시비가 군데군데 얼굴을 내민다. 서귀포문인협회가 추천한 시와 노래 중에서 작고 시인과 서귀포에서 활동하는 원로 시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15점의 시비를 먼저 만들었다. 서귀포 등을 노래한 구상, 박목월, 박재삼, 이생진, 정완영, 정지용, 한기팔 등의 시편이 돌에 박혔고 '서귀포를 아시나요' 노랫말을 담은 비도 한라산이 아미에 걸리는 자리에 동지를 틀었다.

이국의 풍광을 품고 있는 한라산 남쪽 서귀포에만 문학이 머무는 것은 아니다. 제주시 도심엔 한국전쟁과 인연이 있는 문학작품과 문학인들이 기억하는 문학비가 있다.

- 천지연 가는 길 김광협 시비
- 삼매봉 부근 칠십리시공원
- 탐동엔 '떠나가는 배' 설치
- 칠성로 '계몽목 문학의 산실'
- 북촌리엔 '순이삼촌' 문학비
- 장식물 넘어 일상으로 스미길

칠성로 '계몽목 선생의 문학산실'이 그중 하나다. 한국문인협회가 광복 50주년이 되던 1995년부터 시행한 현대문학 표정사업으로 1998년 9월 조성한 문학비다. 제주문인협회가 힘을 보태 종합교양지 '신문화', 제주도 최초의 동인지 '흑산호' 간행을 주도하는 등 한국전쟁 시기인 1951년 봄부터 약 3년간 제주에 살면서 동백다방을 중심으로 '제주문학의 씨앗'을 뿌린 '백치 아다다'의 소설가 계몽목과 제주의 인연을 아로새겼다.

탐동 해변공연장엔 가곡의 노랫말로 귀의는 양중해 시인의 '떠나가는 배' 시비가 있다. 그 시는 한국전쟁 시기에 피난민들을 싣고 가는 배를 바라보면서 읊은 것이라고 했다. 높이 3m, 폭 2.2m 크기의 시비가 탄생한 해는 1999년이다. 제주예총은 당시 새로운

세기를 앞두고 제주바다가 보이는 곳에 놓인 이 시비를 두고 "새 천년에는 우리민족이 하나되어 희망봉을 향해 떠나가는 배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고 의미를 뒀다.

문학의 현장에도 빗물이 있다.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너븐숭이 4·3유적지에서 맞닥뜨리게 된다. 1949년 1월 벌어진 북촌리 학살을 배경으로 써내려간 현기영의 소설 '순이삼촌'을 주제로 설치한 문학비다.

1978년 발표된 '순이삼촌'은 4·3의 참혹상과 그 후유증을 고발함과 동시에 금기처럼 묻혀있던 사건의 진실을 문학을 통해 공론화시킨 소설이다. 너븐숭이 4·3기념관 동쪽, 정부가 매입한 옴팡밭 부지에 있는 '순이삼촌' 문학비는 그것이 또 하나의 설치작품으로 읽힌다.

김수열 시인이 '순이삼촌'이란 글씨를 쓴 문학비 건립 시기는 2007년 11월이다. 고민석 작가는 죄없이 쓰러져간 희생자들의 모습을 붉은 피로 상징되는 총이 위에 놓여져 있는 비석들로 형상화했다. 널브러진 비석들은 소설의 문장들을 꼭꼭 품어 안고 그날의 비극을 드러낸다. "오누이가 묻혀 있는 그 옴팡밭은 당신의 속명이었다. 깊은 소 물귀신에게 채여가듯 당신은 머리끄덩이를 잡혀 다시 그 밭으로 끌려가었다. 그렇다. 그 죽음을 한 달 전의 죽음이 아니라 이미 30년 전의 해묵은 죽음이였다."

섬 제주는 일찍이 술한 문학 작품을 낳은 공간이다. 시간을 거슬러 고전 해양문학 작

품인 제주시 애월읍 한담공원 장한철 '표해록' 빗물까지 끼안으면 제주의 문학비는 한층 풍성해진다.

현존 작가의 시비 등 문학의 공간, 작가 탄생지 등에 문학비가 잇따라 생겨나고 있지만 하나둘 빛이 바래는 문학비도 그만큼 늘고 있다. 계몽목 표정비처럼 세월이 흐르면서 빗물 위 글자를 분간하기 어렵기도 하나 그것들이 '문학 제주'의 상징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더러는 왜 그곳에 그 문학비가 있는지를 묻게 된다.

김광협 시비를 보자. 그 비는 천지연폭포로 가는 길에 있지 않아 부러 발걸음을 돌려야 한다. 천지연 매표소에서 제공하는 접이형 안내 책자에도 '유자꽃 피는 마을' 시비는 없다. 서귀포예총 등에서 진행해온 김광협문학제가 아니면 시비를 찾는 이들이 뜸하다. 김광협 고향 마을인 호근동에 2014년 '수선화' 시비가 들어섰고 2015년 시 전문지에서 김광협문학상을 제정했으나 그 이상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칠십리시공원 시비는 구색 맞춘 조형물처럼 서있었다. 그래서일까. 발길을 멈추고 시구를 눈에 담고 있는 산책객을 보기 어려웠다. 문학이 장식물이 아니라 제주의 일상 안으로 스밀 수는 없는 것일까. 저물녘 도심의 시공원에서 그런 상념이 들었다.

글·사진=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덱스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환급)으로 보청기 제품비용(초기 적합관리비용 포함) 최대 99만 9천원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18만원을 구분하여 지급.
-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111만원+20만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사·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중증~경증)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반
정액특가형, 와이덱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본인부담금 0원 (전액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111,000원 후기 적합관리비용 20,000원 (나머지 90%는 건강보험공단 지원)

*정액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덱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

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없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덱스 보청기만의 고유 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명확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

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이면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분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분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야 한다. 난청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 정확하게 청력을 맞추지 못하면 소리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보청기의 제작은 정확한 청력검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와이덱스의 전 제품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조절하는 디지털 보청기이며, 와이덱스의 센소그램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청력보정 방법으로 청력에 맞춰 소리를 조절하여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

와이덱스 보청기

이 제품은 '영롱기'가머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꼭 읽고 사용하십시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광고사선심사의 심의번호 2010-GN180079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청, CGV, 광양사거리